

이라크 전쟁의 레오 스트라우스 책임론에 대한 정치철학적 비판*

박성우 |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이 논문의 목적은 레오 스트라우스가 이라크 전쟁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대중적인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의 대중적 이미지와 구분되는 외교정책 노선을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의 연장선 상에서 추론하는 것이다. 첫 번째 목적과 관련하여 논문은 스트라우스의 대중적 이미지가 그의 정치철학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논문은 스트라우스의 대중적 이미지가 플라토닉 이상주의와 마키아벨리안 현실주의라는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의 단편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의 정치철학의 본질과 이라크 전쟁과의 관련성은 상당히 미흡한 근거를 갖고 있음을 밝혔다. 본 논문은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중적 이미지가 존속하게 된 원인을 샤디아 드러리와 같은 학계의 지원이라고 보고, 그녀의 스트라우스 해석이 스트라우스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의 왜곡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논문은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의 연장선상에서 그의 외교정책 노선을 추론하였다. 논문은 스트라우스의 외교정책이 고전정치철학의 신봉자 그리고 근대성 비판자의 관점에서 추론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따른 스트라우스의 외교정책 노선은 '절제된 이상주의'와 '절제된 현실주의'의 조합이라고 결론 내렸다.

주제어: 이라크 전쟁, 레오 스트라우스, 외교정책, 현실주의, 이상주의, 절제, 샤디아 드러리 (Shadia Drury)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 레오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의 초근대성)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7-B00015). 논문의 초고 단계에서 귀중한 조언을 해 주신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이혜정 교수와 적절한 지적으로 논문의 수정에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I. 이라크 전쟁 vs. 레오 스트라우스, 외교정책 vs. 정치철학

2003년 봄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의 주요 언론은 이른바 ‘스트라우스(Strauss) 스캔들’을 터트렸다. 이라크 전쟁을 포함해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강경노선을 주도하는 네오콘(neocon)의 배후에는 이들을 이념적으로 조정한 레오 스트라우스(1899~1973)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이다. 스트라우스는 2차 대전 당시 미국으로 망명한 독일계 유대인이며, 오랫동안 시카고 대학에서 정치철학을 강의한 정치철학자이다. 사실 그는 이라크 전쟁이 개시되기 30년 전쯤 세상을 떠났고, 생전에 현실정치에 관여했다는 기록도 없기에 이라크 전쟁의 책임을 그에게 돌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매우 뜻밖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주요 언론은 스트라우스를 이라크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로 지목했고, 뒤이어 연극, 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중매체가 그의 정치철학을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의 공격적 외교안보정책 라인의 사상적 토대로 간주했다.¹ 살아생전 학계 밖에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가 갑작스레 대중적 인기(물론 부정적 의미이지만)를 얻게 되었고, 동시에 그의 사상을 추종하는 집단으로 알려져 있는 스트라우시안들(Straussians)에² 관한 대중적 관심도 폭발했다. 시간이 지나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스트라우스와 스트라우시안들에 대한 관심은 시들해졌고, 2011년 말 이라크 전쟁이 종식을 고하면서 ‘스트라우스 스캔들’은 거의 잊혀진

-
1. 팀 로빈스(Tim Robbins)는 2003년 ‘Embedded’라는 연극의 극본과 연출을 맡아 발표했다. 아담 커티스(Adam Curtis)는 2005년 ‘The Power of Nightmare’라는 영화의 시나리오와 감독을 맡아 발표한 바 있다. 두 작품 모두 이라크 전쟁과 네오콘의 중심에 스트라우스를 놓고 희화하고 있다.
 2. 워싱턴 정가의 스트라우시안은 흔히 네오콘 그룹의 일부 혹은 그 주도자로 알려져 있다. 외교정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트라우시안으로는 윌리엄 크리스톨(William Kristol)과 로버트 케이건(Robert Kagan)이 알려져 있다. 이들의 외교정책은 흔히 ‘시혜적 헤게모니’의 추구로 요약된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제국주의는 소위 ‘우호적인 제국주의’로 정당화되는데, 미국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전략적 이득뿐 아니라, 비민주화된 세계를 좀 더 민주적으로 변혁시킨다는 이상적 열망이 그 근거로 제시된다(West, 2004).

듯하다. 그러나 스트라우스와 이라크 전쟁의 연계는 여전히 퍼즐로 남아 있다. 미디어는 스트라우스를 이라크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고 있지만, 그의 저작에는 국제정치를 직접적으로 다룬 것이 없고, 더구나 미디어가 그의 영향을 받았다고 지목하고 있는 미국 외교정책의 실권자들 중 누구도 스트라우스를 자신들의 이념적 지주로 거론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Tarcov, 2006: 1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라우스가 이라크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첫째, 스트라우스는 그의 광범위한 제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들은 대부분 스트라우시안 혹은 네오콘이 되었다. 둘째, 이들이 미국 정부나 영향력 있는 언론계에 포진하여 부시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직접 입안하거나, 정책결정자들을 조정했다. 셋째, 그들이 제안한 정책에는 이라크 전쟁과 2002년 9월 부시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신전략원칙이 포함되어 있다(Zuckert and Zuckert, 2008: 8). 따라서 이라크 전쟁에서 스트라우스의 책임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이 가정들에 대한 논리적·경험적 검증이 필요하다. 즉 스트라우스는 과연 스트라우시안이라는 집단을 만들었는가,³ 당시 외교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들은 스트라우시안인가, 스트라우시안들 혹은 네오콘의 외교정책에는 어떤 일관성 있는 기초가 있는가, 스트라우시안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진정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을 대변하는가 등이 검증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 스트라우스, 스트라우시안, 네오콘, 외교정책결정자에 이르는

3. 자칭 타칭 스트라우시안이라는 집단이 존재하지만 단순히 스트라우스 문헌에서 수학했거나 혹은 그 제자에게 배웠다고 스트라우시안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 스트라우시안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최근 미노위츠(Minowitz)는 적어도 학계 안에서 스트라우시안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정치철학적 요소들을 열거하며, 그러한 요소들을 교리 내지 성향으로 포함하는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스트라우시안이라고 규정한다. 그 요소들이란 1) 스트라우스의 주요저작을 섭렵하고 (e.g., Strauss, 1953, 1958, 1959, 1964; Pangle 1989; Gourevitch and Roth, 2000) 그의 정치사상방법론에 동조하는 것; 2) 과거의 고전적 저자들이 행간을 통해 의사를 전달한다고 이해하는 것; 3) 고대와 근대의 투쟁, 혹은 예루살렘과 아테네, 계시와 이성, 관계가 가장 중요한 정치사상사의 형성요인이라고 해석하는 것; 4) 실증주의와 역사주의를 반대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Minowitz, 2009: 23).

인적 네트워크와 이들 간의 사상적·이념적 관련성을 일일이 추적하기는 어렵다.⁴ 대신 본 논문은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스트라우스 책임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본고는 첫째, 스트라우스가 이라크 전쟁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미디어의 견해가 어디에서 유래하고(II장), 또 어떻게 이 견해가 대중적 설득을 얻게 되었는가를 검토할 것이다(III장). 둘째, 본 논문은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스트라우스의 저술로부터 그가 지지할만한 외교정책을 추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스트라우스 책임론을 평가할 것이다(IV장).

현 시점에서 스트라우스가 이라크 전쟁의 원인 제공자였다는 주장의 진위를 검토하는 것은 때늦은 혹은 불필요한 연구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어떤 경로로 미국의 언론과 일부 학계가 세상을 떠난 지 이미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스트라우스라는 정치철학자를 미국외교정책의 ‘숨겨진’ 지휘자로 지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주장이 어떻게 대중적 설득을 얻게 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은 정책적 차원과 정치철학적 차원에서 여전히 의의가 있다. 우선, 스트라우스와 네오콘 그리고 부시 행정부 당시의 미국외교정책에 관한 명확한 관계 규명은 정책적 차원의 효용이 있다. 현재 미국외교정책에서 네오콘의 재부상을 예상하는 학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2012년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혹은 그 후라도 언제 또 다른 계기로 네오콘과 스트라우스의 관계가 조명될지 모른다. 만약, (본문에서 상세히 다루겠지만) 2003년 당시 미디어에 의해 형성된 스트라우스와 스트라우시안의 외교정책 노선에 대한 이해가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를 교정하는 것은 적어도 향후 미국외교정책의 분석과 예측에 그릇된 정보 제공을 예방한다는 의의가 있다.

아울러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스트라우스 책임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4. 이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연구로 Minowitz(2009)를 참조.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로는 안병진(2004)을 참고. 후자는 스트라우스와 스트라우시안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대체로 드러리의 스트라우스 해석에 따른다는 측면에서 필자와 견해를 달리하지만, 당시 미국에서도 스트라우스에 대한 미디어의 일방적인 이미지가 팽배해 있는 상태에서 이에 의존하지 않고,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의 핵심적인 요소로부터 네오콘의 사상적 기원을 독자적으로 추적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것은 외교정책과 정치철학의 정상적인 관계 모색이라는 차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스트라우스가 전쟁의 원인 제공자였다는 주장은 스트라우스와 스트라우시안들에 대해서는 물론 그의 정치철학에 대한 강한 반감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런 반감은 정치철학이 어떤 방식으로든 외교정책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상을 강하게 남긴다. 정치철학자인 스트라우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외교정책에 있어서 정치철학의 개입을 경계하고, 정치철학의 실천적 유용성을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본 논문이 외교정책에서 정치철학의 유용성과 바람직한 역할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 다만, 본고는 스트라우스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가 어떤 경로로 왜곡되었는가를 적시하고,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그의 외교정책을 추론해 봄으로써, 외교정책과 정치철학 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레오 스트라우스의 대중적 이미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불협화음

레오 스트라우스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2기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특히 이라크 전쟁의 배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급부상했다.⁵ 갑작스럽게 대부분의 주요 미디어가 레오 스트라우스를 조명하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 뉴요커(New Yorker), 위클리스턴다드(Weekly Standard),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과 같은 미국 언론뿐 아니라,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르몽드(Le Monde), 아시아타임즈(Asia Times) 등과 같은 미국 밖의 언론에서도 레오 스트라우스와 이라크 전쟁의

5. 일부 언론은 1990년대부터 현실정치에 대한 스트라우스의 영향력을 주목한 바 있다. 1996년 주간지 타임(Time)은 스트라우스를 ‘미국정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손꼽은 바 있다(Lacoyo, 1996: 56). 일부 학자들도 일찍부터 스트라우스가 레이건(Ronald W. Reagan)과 1기 부시행정부에 각별한 영향력이 있는 정치사상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Staples, 1994; Devigne, 1994).

연계를 다룬 바 있다(Atlas, 2003; Frachon and Vernet, 2003: 2-3; Lenzner and Kristol, 2003: 10; Heer, 2003; the Economist, 2003/6/19). 이 중에서 ‘스트라우스 스캔들’을 부각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두 개의 기사가 있는데, 뉴욕커의 저명한 폭로기자 세이무어 허쉬(Seymour Hersh)가 쓴 기사와 뉴욕타임즈의 제임스 아틀라스(James Atlas)의 기사이다.

풀리처상(1970)과 그 밖의 다수의 언론 상을 수상한 바 있는 허쉬는 2003년 5월 뉴욕커에 이라크 전쟁에 관한 폭로 기사를 실었다(Hersh, 2003). 그에 따르면, 부시행정부 안에 혹은 그 주변에는 긴밀하게 조직된 스트라우시안 그룹이 있으며, 그 중 가장 두드러진 인물로 폴 울포위츠(Paul Wolfowitz)를 꼽을 수 있는데, 그가 바로 이라크 전쟁을 기획했고, 전쟁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해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거나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워싱턴 정가의 스트라우시안들은 “기만이 정치세계의 규범이 될 수밖에 없다”는 스트라우스의 신조를 철저히 따랐다는 것이다. 스트라우스는 또한 정치가 가장 바람직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1인의 왕이나 통치자를 뒤야 하는데, 이 통치자는 언제든지 대중을 속일 능력이 있는 소수 엘리트 집단에 의해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한다. 이런 허쉬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부시 행정부는 처음부터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정보의 왜곡이나 기만에 개의치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아직 스트라우시안들이 왜 하필 이라크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는지, 무슨 목적으로 이라크 전쟁을 기획했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서 허쉬는 외교정책결정에서 스트라우시안들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즉 스트라우시안들은 현재 우리가 ‘고립된 자유민주주의가 끊임없이 외부의 적대적인 요소들에 의해 위협받는’ 세계에 살고 있으며, 아울러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Hersh, 2003: 48).⁶

허쉬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스트라우시안들은 어리석고 모순적인 정

6. 비슷한 맥락에서 알랑 프라송(Alain Frachon)과 다니엘 베르네(Daniel Vernet)는 르몽드에 스트라우시안들이 단순한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 모델의 보편적 타당성에 확신을 갖고, 폭력을 수반한 체제변환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 모델을 강제이식 하려는 낙관적 이상주의자들이라고 주장했다(Frachon and Vernet, 2003: 12-3).

책결정자들이다. 스트라우시안들이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이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음을 알고도 이라크를 공격했다는 것인데, 이는 ‘자유민주주의가 끊임없이 위협받는 위험한 세계’에서 아직 덜 위험한 적을 공격한 것을 의미한다. 외부의 적대적인 요소들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물적, 인적 자원의 분별 있는 사용을 요하는데, 아직 덜 위험한 적을 공격한 것은 쓸데없이 귀중한 자원을 낭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약 스트라우시안들이 처음부터 뻔히 드러나게 될 거짓으로 미국의 군사력을 소모했다면, 정작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했을 때, 대중을 설득할 힘을 잃게 된다는 자명한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허쉬의 기사가 사실이기 위해서는 워싱턴의 스트라우시안들이 이같이 어리석고 모순적인 자들이어야 한다.

허쉬의 기사는 이와 같은 논리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스트라우시안들이 이라크 전쟁을 음모했으며, 그 음모의 동기가 그들이 신봉하는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강한 인상을 남겼다. 허쉬의 기사가 이라크 전쟁이 기만과 조작에 기반한 스트라우시안들의 작품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면, 스트라우스의 대중적 이미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또 다른 기사는 스트라우스와 스트라우시안들이 이라크 전쟁을 넘어 전반적으로 공격적 외교정책을 지향하는 세력이라는 인상을 심어 줬다 (Atlas, 2003).

아틀라스에 의하면, 스트라우시안들의 공격적 성향에 영향을 준 스트라우스는 노골적으로 ‘강자들의 자연적인 권리’를 인정했다고 한다.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강자의 자연적인 권리란 일찍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Peloponnesian War)의 〈멜로스 대담〉 중에 아테네인들이 주장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고, 강자의 힘이 곧 정의라는 것이다. 아틀라스의 언급처럼 스트라우스나 스트라우시안들은 종종 〈멜로스 대담〉의 아테네인들을 인용한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이들이 아테네인의 입장을 동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스트라우스는 〈멜로스 대담〉의 아테네인들이 아니라, 이 대담을 펠레폰네소스 전쟁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소개하고 있는 투키디데스(Thukydides)의 입장에 동조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투키디데스는 강자의 현실적 지배를 기록했

을 뿐 아니라, 강자의 오만(hubris)이 어떤 비극적 결말을 초래하는가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스트라우스나 스트라우시안들이 투키디데스의 교훈을 주목했다면, 이들은 〈멜로스 대담〉의 아테네인들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제관계를 봤을 것이고, 예컨대, 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절제의 필요성을 이해했을 것이다(e.g., Struass, 1964). 이런 관점에서 아테네인들이 제시한 강자의 지배 이데올로기(ideology)와 스트라우스를 연결시킨 아틀라스의 기사는 매우 단편적인 시각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사는 내용의 진위나 논리성보다는 기사의 폭로적 성격에 힘입어 스트라우스에 대한 부정적인 대중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사실 스트라우스의 대중적 이미지를 주도한 언론매체들은 미국외교정책과 스트라우스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주장하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미흡한 것들이 많다.⁷ 이들에게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대중적 설득을 위해서 불필요한 수고에 불과했고, 이런 분위기는 확인되지 않는 내용의 순환과 반복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에는 스트라우스와 이라크 전쟁과의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어떤 논리적, 경험적 통일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가 만

7. 이에 대한 포괄적인 지적으로 Zuckert and Zuckert(2008), Minowitz(2009)를 참고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네오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교정책 결정자 중 한 사람인 폴 울포위츠가 워싱턴의 대표적인 스트라우시안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시카고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을 뿐, 스트라우스의 제자가 아니라, 수학자이자 강경노선의 군사전략가인 웰스테터(Albert Wohlstetter)의 제자였다. 허쉬는 또 울포위츠가 1972년 스트라우스로부터 학위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스트라우스가 이미 1968년 시카고대학을 떠난 사실도 놓치고 있다. 2002년 미 국방성의 The Office of Special Plan에 관여한 바 있는 숄스키(Abram Shulsky) 역시 시카고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골수 스트라우시안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학계를 떠난 지 이미 오래되어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과 그의 정치적 결정을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사실 그의 정계 입문도 스트라우시안과 거리가 먼 민주당 상원의원인 모이니한(Daniel P. Moynihan)에 의해 시작되었다. 또 미디어는 종종 부시대통령이 스트라우시안들을 자신의 정책적 멘토로 생각했다는 근거로 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연설(2003/2)에서 그가 언급한 ‘the best brains in our country’라는 표현을 제시하는데, 당시 AEI 구성원 56명 중 스트라우시안은 2~3명에 불과했다. 일찍부터 스트라우시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펄(Richard Perle) 역시 USC 학부 출신으로 모겐소의 영향을 받았지 스트라우스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스스로 증언한다. 굳이 스트라우스와의 관련성을 따지자면, 펄이 프린스턴 박사과정 재학시절 보스턴대학(Boston College)에 있던 스트라우시안 로버트 포크터(Robert Faulkner, 1964년 시카고 대학 박사)의 세미나를 들은 것이 전부다 (Minowitz, 2009).

든 스트라우스의 대중적 이미지가 전적으로 허구라고만 할 수도 없다. 적어도 이들 중 일부는 단편적이긴 하지만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의 일부 요소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커트(Zuckert) 부부는 스트라우스의 대중적 이미지의 두 축을 크게 ‘플라토닉(Platonic)-스트라우시안 이상주의’와 ‘마키아벨리안(Machiavellian)-스트라우시안 현실주의’로 소개한다. 전자가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의 목적과 대의와 관련된 스트라우스 이미지의 한 축이라면, 후자는 그것의 수단, 혹은 수단의 정당화와 관련된 스트라우스 이미지의 또 다른 축이다(Zuckert and Zuckert, 2008: 4). 이제 두 축의 검토를 통해서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의 어떤 요소들이 이러한 대중적 이미지 구축을 허용했고, 또 이 이미지는 어떤 방식으로 그의 정치철학을 왜곡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스트라우스의 대중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첫 번째 축인 ‘플라토닉-스트라우시안 이상주의’는 실증주의와 역사주의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정치적 상대주의를 반대하는 스트라우스의 입장에 기인한다(Stauss, 1953: 35-80). 실증주의는 경험적·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만을 진리로 받아들인다. 가치에 대한 모든 주장은 주관적인 선호에 불과한 것이고, 가치는 늘 주체에 따라 ‘상대적’이므로 합리적으로 입증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역사주의는 이보다 더 상대주의를 진전시킨다. 역사주의는 실증주의자들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경험적 진리까지도 시간적 조건에 구속되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불과하다고 간주하고 상대화시키기 때문이다. 스트라우스는 이러한 실증주의와 역사주의가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도덕적 상대주의에 빠지게 된다고 보았다. 이런 스트라우스에 주목하면서 미디어는 스트라우스가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풍미했던 도덕적 상대주의를 반대하고, 소위 도덕적·사회적 가치가 절대적으로 인지될 수 있다는 가치인지주의(value cognitivism)를 지지했다고 파악했다(Atlas, 2003).

아틀라스가 주목한 것은 스트라우시안들이 도덕적 상대주의를 단지 사변적인 문제로만 본 것이 아니라 당시의 주류 미국외교정책의 기반이 되었다고 파악했다는 점이다. 아틀라스에 따르면, 스트라우스인들은 카터 시절의 일종의 ‘불안감(malaise),’ 닉슨(키신저) 시절의 데탕트 정책, 냉전시절 서구자유

주의 정치와 공산주의 정권의 병렬적 대우 등이 도덕적 상대주의의 만연으로부터 초래된 것으로 보고 이런 외교정책 기조를 ‘도덕적 선명성’의 관점에서, 맹비난했고 스트라우스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도덕적 상대주의를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비판한 스트라우스 사상에 의해 영향 받았다는 것이다(Atlas, 2003).⁸ 스트라우스가 근대성 비판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상대주의의 위험을 경고했고, 실증주의와 역사주의를 상대주의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스트라우스의 근대성 비판이 아틀라스가 주장하듯 곧바로 가치의 절대화를 의미하는 가치인지주의로 연결된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다. 또 기사는 스트라우스의 도덕적 상대주의 비판이 외교정책에서의 도덕적 선명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도덕적 선명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미디어의 저자들은 이 도덕성이 대체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의미할 것이라고 믿는다. 스트라우스가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일 것이라는 심증은 그의 딸, Jenny Strauss Clay의 주장에 의해 확산되었다. 그녀는 “스트라우스는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결함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정체가말로 실현가능한 최선의 정체라고 여겼다”고 주장했다(Clay, 2003).⁹ 스트라우스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했음은 언론인들뿐 아니라 그의 정치철학에 대해 중립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학자들에 의해서도 대체로 확인된다(e.g., Larmore, 1989: 32, cf. 정치인의 평가로는 Gottfried, 2002).¹⁰ 그러나 스트라우스의 대중적인 이미지는 스트라우스가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라는 사실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취약성에 대한 스트라우스의 현실 인식이 그의 독특한 외교 정책 노선과 연결되어 있음에 주목한다(e.g., Hersh, 2003). 즉, 스트라우스는 전 세계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외교

-
8. ‘도덕적 선명성’이란 용어는 부시행정부 시절 부시대통령 자신이 그리고 스트라우스의 영향을 받은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 윌리엄 크리스톨(William Kristol)에 의해 자주 사용된 바 있다(Pfaff, 2003).
 9. Frachon and Vernet도 스트라우스가 처칠과 마찬가지로 미국민주주의를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정체로 여겼다고 지적한다(Frachon and Vernet, 2003; cf. D’Souza, 1987; Pangle, 2004: 200).
 10. 이와 대조적으로 드러리는 스트라우스가 표면적인 자유민주주의자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Drury, 1988).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정책을 전개하기 위해, 우선 국내 정치질서의 본질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체제(regime) 개념을 제시했는데,¹¹ 이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체제’의 존재 자체가 미국에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미디어에 따르면, 스트라우스 외교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위협하는 체제를 전환(regime change)하는 데 있다고 한다. 이는 소위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의미한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스트라우스의 이 같은 이미지를 주커트 부부는 ‘플라토닉-스트라우시안’ 이상주의라고 요약한다(Zuckert and Zuckert, 2008).

미디어가 만들어 낸 스트라우스 이미지의 두 번째 축은 이상주의의 실현 방식과 관련 있다.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확산을 위한 체제 전환에는 그 속도와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패턴이 나올 수 있는데, 스트라우스는 매우 독특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방법을 주커트는 소위 ‘마키아벨리안-스트라우시안 현실주의’라고 칭한다. 이 ‘스트라우시안 현실주의’의 가장 특이한 요소는 노골적인 엘리트주의에 있다. Heer는 “스트라우스가 인간들 간에 자연적인 위계질서가 있다고 믿었고 통치자들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일반인들의 평범함이나 천박함을 적당히 활용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스트라우스 엘리트주의를 묘사한다(Heer, 2003; cf. Berkowitz, 2003; Lobe, 2003).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스트라우스의 엘리트주의가 민주정치의 운영에 있어서 엘리트의 역할을 강조한 기왕의 근대정치이론에 비해서 딱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West, 2004).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는 스트라우스의 엘리트주의를 기왕의 어떤 민주적 엘리트주의보다 괴상하고 사악한 것으로 묘사한다. 이들이 주목하는 스트라우스 엘리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부나 사회적 지위 혹은 정치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적인 능력에 따라 소수의 엘리트와 다수 대중을 구분한다는 점이다. 즉, 스트라우스에게는 ‘진리’의 인식

11. 크리스틀에 따르면, 스트라우스야말로 ‘체제’문제를 분석의 주 대상으로 삼는 정치학의 회복을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한다(Lenzner and Kristol, 2003).

12. 예컨대, 민주주의적 신념을 표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나, Schumpeter, Dahl은 모두 민주주의의 운영과정에서 엘리트의 적절한 역할을 인정한다(Hamilton, Madison, and Jay, 1987; Schumpeter, 1942; Dahl, 1956).

여부에 따라 철학자인 엘리트와 비철학자인 대중이 규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진리란 다름 아니라 ‘신은 존재하지 않고’, ‘정의는 신적(神的)이므로 자연적으로 구현되지 않으며’, ‘세상은 오직 편의에 의해서만 작동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탁월성을 가질 수 없고 강자만이 자연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소위 마키아벨리안 현실주의를 그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다 (cf. Heer, 2003; Pfaff, 2003; Berkowitz, 2003; Frachon and Vernet, 2003; Atlas, 2003).

더불어 스트라우스는 철학적인 엘리트들이 발견한 이 같은 진리들이, 공동체를 건전하게 유지해야 하는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부적절하게 보았다. 따라서 철학자들은 그들의 위험한 진리를 대중에게 숨겨야 하며, 철학자들끼리는 비의적(秘意的, esoteric) 방법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Heer, 2003: 4). 이 때문에 엘리트가 대중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대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까지 말한다. 따라서 철학자들은 정치 권력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비철학자들에게 소위 ‘고상한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스트라우스의 교리라고 미디어는 전했다(Hersh, 2003: 7; Heer, 2003: 3). 요컨대, 미디어가 묘사하고 있는 스트라우시안 현실주의는 대단히 마키아벨리적이다(e.g., Heer, 2003: 5). 스트라우스의 대중적 이미지의 한 축인 ‘마키아벨리안-스트라우시안 현실주의’는 스트라우스와 이라크 전쟁, 그리고 공격적이고 기만적인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준다. 즉 스트라우스안 현실주의의 마키아벨리적인 요소가 부시 행정부가 동원하고 있는 모든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담 후세인과 알카에다(Al-Qaeda)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계속 수행했던 것은 엘리트에게 대중조작과 고상한 거짓말을 허용한 스트라우시안 현실주의가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미디어에 의해 구축된 스트라우스의 대중적 이미지의 구성요소를 확인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그 내용의 진위를 일일이 따지는 않겠다.¹³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스트라우스의 대중적 이미지를 구성하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는 사실 양립하기 힘든 내

재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실히 보장할 목적으로(플라토닉-스트라우시안 이상주의), 가장 반자유주의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마키아벨리안-스트라우시안 현실주의)에는 분명 내적 갈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라우스의 대중적 이미지는 양자의 내적 갈등을 인식하지 못했다. 대중적 설득이 유지되는 한 논리적 일관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나중에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과 이에 따른 외교정책에는 분명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스트라우스는 양자의 내적 갈등을 감추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대신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절제의 방향으로 조화시키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IV장에서 다룰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 확인되는 스트라우스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간의 내적 갈등은 스트라우스의 사상 자체에 기인한다기보다, 그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편협한 방식으로 해석한 스트라우스의 대중적 이미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가 만들어낸 스트라우스의 이미지는 대중에게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다. 아이러니하게도 미디어의 스트라우스 해석이 대중적 설득을 거둘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는 이를 승인하고 보완해 주는 학계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장은 이러한 학계의 지원을 통해 스트라우스의 대중적 이미지가 어떻게 왜곡된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는가를 검토한다.

-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지적하자면, 우선, 플라톤과 마키아벨리의 조합으로 이뤄진 스트라우스의 대중적 이미지의 두 축은 그의 정치철학의 단편적인 요소를 확대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스트라우스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의 정치철학이 도덕적 상대주의 비판이나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시대 착안적인 주제보다 훨씬 보편적이고 초역사적인 정치철학적 주제(e.g., 이성과 계시의 관계, 정치철학과 정치신학의 관계, 고대와 근대의 투쟁 등)를 다루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e.g., Smith, 2009; Meier, 2006). 또 미디어의 저자들은 스트라우스의 저작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그 저작의 전후 문맥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인용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컨대, 아틀라스는 스트라우스의 저서 *City and Man*에서 “서구 민주주의를 위해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개별 국가들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즉 세계가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전쟁을 지지하는 부시행정부의 전략가들이 끊임없이 스트라우스에 호소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지만 (Atlas, 2003), 사실 이 구절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스트라우스는 여기서 비판을 목적으로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을 대변한 것임을 알 수 있다(Strauss, 1964).

III. 학계의 反스트라우스 전통과 샤디아 드러리(Shadia Drury)의 ‘공헌’

미디어가 만들어 낸 스트라우스의 이미지가 단편적이고 획일화된 인용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중적 설득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미디어가 지닌 속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다른 한편 이 미디어의 저자들이 종종 학계의 反스트라우스 혹은 反스트라우시안 분위기를 적절히 활용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정치학계나 정치사상계에서 반스트라우스 분위기는 이미 1980년대부터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기존 학계의 반스트라우스 정서는 그의 현실정치에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보다는 주로 서양정치사상사(史)의 전통에서 고전(古典)을 해석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스트라우스에 의해 대변되는 소위 ‘텍스트주의(textualism)’는 고전의 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지성사적 맥락(context)보다 ‘텍스트의 행간’의 의미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스트라우스에 따르면, 이 행간의 의미는 단순히 텍스트를 면밀히 분석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꺾박을 피하기 위해 고전의 저자가 텍스트 안에 숨겨놓은 의도를 파악할 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텍스트주의를 포함하여 정치사상사의 해석에 관한 독특한 접근법을 갖고 있는 스트라우스의 입장은 지금도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본 논문의 성격과 지면의 제약 상, 여기서 자세히 다루기는 어렵다.¹⁴ 다만 이 장에서는, 미디어는 왜 스트라우스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교정하는 데 학계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기왕의 대중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계의 논의를 수용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스트라우스의 대중적 이미지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학계의 인물로는

14. 예컨대, 정치사상사에서 고대에서 근대로의 전환을 일종의 타락으로 파악하는 입장, 고전적 저자들의 정치적 꺾박과 저술의 방법과 관련된 비전적(esoteric)-시대착안적(exoteric) 저술의 차이, 이성과 계시의 대립을 전제로 한 아테네와 예루살렘의 대조, 같은 맥락에서 정치철학과 정치신학의 긴장관계 등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의 중심 주제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 학계의 분위기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개설서로 Pangle(2006), Tanguay(2007), Smith(2007)을 참고.

샤디아 드러리를 들 수 있다.¹⁵ 그녀는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의 특성이 단순히 정치사상사에 관한 독특한 해석 방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치철학을 추앙하는 스트라우시안들을 매개로 현실정치에의 강한 참여 의도를 갖는 점이라고 밝힌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디어도 이미 드러리와 비슷한 주장을 제시한 바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녀의 주장은 대부분의 스트라우스 저서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디어의 문제점이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에 관한 사실관계의 미확인이나 논리적인 오류에서 발견된다면, 드러리의 문제점은 그녀의 스트라우스 해석이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의 본질로부터 의도적으로 벗어나 있다는 데 있다.

드러리는 일찍이 1988년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에 관한 책을 저술한 후(Drury, 1988), 2005년 네오콘과 스트라우시안의 외교정책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즈음, 새로 서론을 추가하여¹⁶ 같은 책의 재판을 냈다. 두 판 모두 정치철학계에서는 이례적인 폭로성 저작이다. 1988년 책이 스트라우스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바와 달리 플라톤주의자가 아니라 마키아벨리안 혹은 니체주의자였다는 ‘숨겨진’ 사실을 폭로했다면, 2005년 개정된 신판은 새로 추가된 서론을 통해 미국외교정책의 배후조정자로 추정되는 스트라우스의 ‘숨겨진’ 의제를 폭로했다. 그 숨겨진 의제란 대체로 현자가 ‘고상한 거짓말’의 도움으로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는 신념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대외정책과 관련해서는 전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드러리에

15. 그러나 드러리 이전에도 학계에서 스트라우스의 정치적 영향력을 평가한 사례가 있다. 영국의 고대철학교수 Myles Burnyeat과 미국사학자 Gordon Wood가 대표적이다. Burnyeat은 특히 플라톤의 〈국가〉에 관한 스트라우스의 해석을 놓고, 그의 해석을 ‘무자비한 반이상주의’의 철학적 원천이라고 비난했다(Burnyeat, 1985). 스트라우스의 왜곡된 정치철학이 레이건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Burnyeat의 주장은 당시의 학계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지만, 대중매체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한편, Wood는 미국헌법 200년을 기념하면서 다수의 책을 논평하는 데(Wood, 1988), 스트라우스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과 미국 건국기에 대한 학문적 성과를 논하면서, 스트라우시안들이 헌법해석에 있어서 ‘원본주의(originalism)’를 지지하는 성향이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스트라우시안과 미국건국사상과의 관련성에 관한 국내연구로 장원석(2005)을 참고 미국헌법 해석에서 원본주의의 의미에 관한 국내연구로 박성우(2006)를 참조.

16. 2005년판 서론의 제목은 ‘Straussians in Power: Secrecy, Lies, and Endless War’이다. 이 서론 제목이 드러리 책의 의도를 잘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르면, 스트라우스와 스트라우시안들은 ‘전쟁에 대한 영원한 집착’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드러리의 2005년 판 서론의 특징은 기존의 미디어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그녀는 여기서 스트라우스와 스트라우시안을 거의 구별없이 사용하고, 네오콘에 대한 신랄한 비난을 하면서도 네오콘이 스트라우스나 스트라우시안들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에 대한 믿을만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는다.¹⁷ 드러리의 스트라우스 연구가 이라크 전쟁 이후에 개시된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스트라우스 음모론이 제기되면서 미디어가 만들어 낸 스트라우스의 왜곡된 이미지를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에 편승하여 스트라우스와 부시 외교정책의 연관성을 정치사상적으로 확인해 주는 역할을 했다. 이라크 전쟁 발발 이후 미디어가 스트라우스 스캔들을 조성하는 데 상당 부분 드러리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스트라우스의 대중적 이미지가 형성된 이후에는 역설적으로 그녀 역시 미디어의 영향력에 압도되어 학문적 엄밀성마저 망각하는 듯한 경향을 보였다.¹⁸

드러리에 따르면, 스트라우스나 스트라우시안들에게 정치철학은 고대중세 정치철학의 독특한 해석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특히 ‘비전적 저술’이라는 기술에 의해 전수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철학이란 소수의 현자에게만 열려 있는 진리로 향하는 경로이다. 이 진리란 다름 아닌 도덕에 관한 것으로서, 철학자들은 도덕을 그것 자체로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정치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자신을 정치적 핍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존중하는 반면 정치공동체의 상류시민층은¹⁹ 전통적인 도덕을 의심없이 받아

17. 그녀는 다만 스트라우시안과 네오콘의 연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스트라우스는 공화당의 네오콘 이데올로기의 영감을 불어 넣은 인물이다…(중략)…스트라우스의 제자들은 학문적으로 혼란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대학에서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중략)…그래서 이들은 학계를 떠나 권력을 잡기 위해 워싱턴의 싱크탱크나 정당 그리고 재단 그리고 유엔 등에 퍼지게 되었다”(Drury, 2004).

18. 드러리의 서론의 마지막 문장은 스트라우스(스트라우시안)에 대한 그녀의 이해가 학문적이라기보다 선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미국이 신과 국가의 이름으로 영원한 전쟁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면, 스트라우시안들은 (그 명예로운 거짓말쟁이들은) 그들이 미국의 야수성으로 조국을 구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환호할 것이다”(Drury, 2005: li).

19. 스트라우스는 정치공동체의 중추가 되는 정직하고 고상한 시민들이라는 의미의 고대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 도덕이 ‘관습적인 믿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철학자들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드러리는 또한 스트라우스가 고전정치철학에 심취해 있다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을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의 근본적인 문제로 삼는다. 그녀에 따르면 스트라우스의 고전정치철학의 해석 방법이 매우 특이한데, 스트라우스는 아이러니하게도 고전정치철학을 마키아벨리 식으로 혹은 니체 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즉, 스트라우스는 고전정치철학자들 역시 마키아벨리주의자였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이들이 근대의 마키아벨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마키아벨리와 같이 자신의 세계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전의 저자들이 드러내지 않은 마키아벨리적인 진리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철학자들만 알고 있어야 하는 ‘진리’와 상통한다. 즉 ‘세상에 정의에 관한 자연적 혹은 신적인 지지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에게 좋음이란 오로지 쾌락밖에 없으며’, ‘자유와 평등과 같은 자연적인 권리는 없고 오직 자연의 질서란 강자의 지배와 약자의 예속’이라는 것 등이다(Drury, 1988). 그런데 이 진리는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거나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철학자들만이 감히 이 진리를 대면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철학자들은 이 진리를 다수 대중에게는 숨기고, 대신 자기들끼리 비밀스런 소통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해석에 대한 대표적인 반론은 Blitz(2003)를 참고). 드러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철학자들이 행하는 거짓이 사실은 그들의 권력욕을 충족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²⁰ 요컨대, 드러리는 “스트라우스시인 철학자들은 상층시민들(gentlemen)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여 간접적으로 지배욕을 채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상층시민들이란 “부시나 럼스펠드 같이 대중을 조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춘,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철학자들에 의해서 조작 당하고 있는 이들이다”라고 언급한다(Drury, 2004).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에 대한 이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드러리는 스트라우스와 이라크 전쟁의 연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첫째, 스트라우스

의 용어로서, kaloi kagathoi를 번역하여 종종 상류시민층(gentlemen)이라고 부른다.

20. 드러리의 이러한 주장은 일반적으로 철학자의 비전적 저술이 정치적 폄박을 피하기 위한 철학자들의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주장과는 구별된다(cf. Larmore, 1989).

는 정치공동체의 안정과 통일을 위해서 늘 ‘외부적 위협’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스트라우시안은 스트라우스의 기본 기초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 없이 전쟁을 원하고, “만약 외부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위협은 만들어져야(조작이라도 되어야) 한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은 바로 스트라우스와 스트라우시안의 이러한 동기에 기인한다는 것이다(cf. Lobe, 2003: 2). 둘째, 스트라우시안들은 스트라우스의 가르침에 따라 이미 ‘고상한 거짓말’에 죄책감이 없으며, 오히려 의무적으로 대중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Drury, 1997: 19, 78, 80-81; cf. Minowitz, 2009: 280). 따라서 이라크 전쟁 개시 후 표면적인 전쟁의 명분이 허위로 밝혀졌어도 이들은 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으며, 대신 이라크의 압박한 위협이 상존한다는 것으로 전쟁의 구실을 바꿨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트라우스는 자유주의자도 민주주의자도 아니고, 따라서 그의 추종자들도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을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가 아니라는 것이다(Lobe, 2003; Postel, 2003; 이에 대한 반론으로 Lilla, 2004a: 59; Lilla, 2004b: 56).²¹ 드러리는 스트라우스가 지혜와 일상적 덕을 구분함으로써 지혜를 가진 자에게 정치권력을 부여하고, 나아가 이런 ‘진리에 대한 독특한 경로’를 이해하고 있는 ‘독재적 엘리트’가 적어도 지적(知的)으로 민주주의를 배격하는 성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Drury, 2005: xix).

드러리의 주장은 미디어가 형성한 스트라우스의 대중적 이미지와는 달리 적어도 스트라우스의 저작에 대한 성실한 독서를 기초로 하고 있다. 특히 그녀는, 스트라우스의 이상주의가 표면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스트라우스는 본질적으로 일관성 있는 마키아벨리적인 현실주의자라고 주장함으로써, 스트라우스의 대중적 이미지가 안고 있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내적 갈등 문제를 해소하려 했다. 드러리는 스트라우스의 이상주의가 대중에게 선언되는 원칙인 반면, 그의 현실주의는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공개되는 이른바 ‘비의적 교훈(esoteric teaching)’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스트라우스의 대중적 이미지를

21. 이와 같은 드러리의 평가는 라로슈(LaRouche)의 정치적 선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LaRouche, 2003). 라로슈가 스트라우시안 사상에서 나치즘이나 파시스트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 드러리는 스트라우스가 나치사상의 삼두마차(니체, 하이데거, 슈미트)의 추종자라는 주장을 제기한다(Drury, 1997, 2004).

일부 수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이후 드러리의 주장은 학문적 엄밀성에 의존하기보다는 미디어의 대중적 이미지를 추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드러리는 이 때부터 스트라우시안 그리고 네오콘을 구분없이 사용하는가 하면, 철학자가 정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상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스트라우스의 언급이 마치 정권 담당자가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을 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호도하기도 한다. 요컨대, 드러리의 스트라우스 연구는 학계의 *反*스트라우스 정서를 대변하는 가장 정교한 이론이고, 이 때문에 촉박한 시간을 두고 글을 써야하는 미디어의 저자들은 그녀의 연구를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²² 스트라우스와 이라크 전쟁의 연결고리에 대한 논증에 있어서는 사실상 미디어의 수준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드러리의 스트라우스 연구의 더 큰 문제는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을 이상의 구체적 실현을 전제로 하는 정치철학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녀는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의 ‘실천적’ 의도를 맑스의 실천적 의도와 비견할 만한 것으로 본다(Drury, 2005: 16). 그러나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은 기본적으로 실천적 지향성을 가진 철학이라기보다 ‘삶의 방식으로서의 철학’에서 연유한다. 다시 말해,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은 맑스, 혹은 보다 넓은 맥락에서 근대계몽주의가 공유하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기획’으로서의 철학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의 철학’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즉 정치공동체 안에서 철학적 삶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출발했다는 것이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의 동조자뿐 아니라 중립적인 연구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Tarcov, 2011; Tanguay, 2007; Pangle, 2006).²³ 따라서 드러리의 스트라우스 연구는 미디

22. 미디어의 스트라우스에 대한 관심의 배후 그리고 미디어의 스트라우스 해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준 학계의 책이 드러리의 것이라는 증거로는 다음을 참고(Steinberg, 2003: 34; Papert, 2003: 57). 페퍼트(Papert)은 드러리의 1988년 책(Drury, 1988)을 ‘스트라우스에 관한 최고의 책’으로 평가하며, Steinberg는 드러리의 다른 책(Drury, 1997)을 근거로 스트라우스에게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은 네오콘의 리스트를 만들었다.

23. 스트라우스는 정치철학을 삶의 방식으로 정의하면서 다음과 표현하고 있다. 즉 정치철학이란 언어적으로 “정치를 철학적으로 처리”하거나 “철학을 정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치철학은 본질적으로 전자가 아니라 후자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자는 철학적 이상을 정치 현실에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철학

어의 선입견을 강화하고 보완해 주는 역할을 했을지언정, 미디어의 오해를 교정하지 못했다.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철학’은 정치권력을 추구하거나, 더구나 독재를 갈망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리는 ‘가장 권력지향적인 스트라우스’를 학문적인 언어를 통해 대중에게 제시한 것이다.

IV. 레오 스트라우스의 가상 외교정책 노선: 절제로 수렴하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스트라우스의 대중적인 이미지, 그리고 이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한 드러리의 주장에 모두 결함이 있다면,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에 부합하는 외교정책 노선은 무엇인가? 그의 정치철학의 연장선상에서 이라크 전쟁이나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나? 스트라우스가 직접적으로 국제정치나 외교정책을 다룬 글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는 비교적 외교정책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스트라우스의 자료를 통해 그의 외교정책을 추론하고자 한다. 스트라우스 외교정책에 대한 추론은 그의 정치철학의 핵심을 이루는 두 차원, 즉 고대정치철학의 신봉과 근대성의 비판의 차원에서 가능하다.

고전정치철학자의 신봉자로서 스트라우스의 외교정책을 유추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자료는 *City and Man*(Strauss, 1964)라는 저서이다. 이 저서는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플라톤의 『국가』, 그리고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책의 장 순)에 관한 스트라우스 자신의 정치철학적 해석을 결집한 주석서로서, 정치철학과 정치적 실천의 관계에 관한 스트라우스의 입장을 가장 잘 보여준다. 스트라우스에 따르면, 고전정치철학은 근대정치철학에 비해 정치철학사(史)의 교조적 원리에 오염되지 않았으므로,

적 활동을 정치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철학적 삶이 정치공동체 안에서 용인되고 정당화되는 것을 의미한다(Strauss, 1959).

우리는 고전정치철학을 통할 때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를 순수하게 사고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세 고전 사상가에 대한 해석은 우리로 하여금 근대적 편견이라는 장애물을 넘어 가장 본질적인 ‘정치적인 것’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같은 맥락에서 Strauss, 1953: 12-164).

스트라우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분석하면서 고전정치철학에서 발견되는 대외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을 그 정치공동체의 생존과 독립으로 본다(Strauss, 1964). 이 원칙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어서, 스트라우스는 “고대세계에서 외교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본질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이런 맥락에서 “고대정치철학은 정치공동체의 대외관계(외교정책)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주로 정치공동체의 내부적 구조에만 관심을 갖는다”라고 지적한다. 스트라우스에게 외교정책은 국내정치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다. 스트라우스의 이런 입장은, 정치공동체의 최고의 목적은 그 구성원에게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자족성(self-sufficiency)을 갖추는 것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대외정책은 이런 공동체의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 즉 공동체의 자기보존(물론 이것이 긴급하고도 긴요한 수단이긴 하지만)을 확보하는 데 그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한다.²⁴

이 대목에서 스트라우스는 훌륭한 국가의 확장 범위에 관해서 의미심장한 언급을 한다. 먼저, 스트라우스는 훌륭한 국가는 대외관계에 있어서 정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이 언급은 마치 훌륭한 국가에게 대외관계에서 무제한적인 확장을 허용해 주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논지는 그 반대의 의미를 시사한다. 즉 스트라우스는 “훌륭한 국가의 영토의 크기는 그 국가의 온전한 필요”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온전한 필요’란 앞서 언급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부합하는 자족적인 공동체가 생존할 만큼의 크기를 의미한다. 스트라우스의 입장에서 훌륭한 국가는

24. 이런 맥락에서 스트라우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스파르타를 비판했음을 지적한다. 스파르타의 법은 정치의 목적이 마치 전쟁을 통해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Strauss 1964: 13-49). 스트라우스와 비슷한 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재해석한 연구로 박성우(2011)를 참고.

국가들 간의 정의를 추구할 필요는 없지만(그런 의미에서 대외관계는 기본적으로 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력에 의한 무제한적인 확장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 훌륭한 국가의 대외관계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자족적인 공동체의 자기보존에 필요한 적정한 영토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는 실천적 지혜이다. 따라서 지각 있는 국가는 자기보존에 필요하지 않는 한 자기확장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며 불필요한 제국주의적 팽창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City and Man*의 두 번째 장은 플라톤의 『국가』를 다룬다. 스트라우스는 여기서 플라톤의 『국가』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보다 대외정책에서 현실주의적 관점을 보다 많이 반영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플라톤의 『국가』에서 소크라테스는 이상국가의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정한 크기의 영토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국주의적 팽창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Strauss, 1964: 96). 그러나 이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영토의 팽창은 대단히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다. 플라톤의 이상국가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것과 비슷하게 팽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물질적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각자 자기 일을 하는’ 정의로운 삶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제한적일지라도 이 국가의 주변국에 위치한 나라들은 불가피하게 정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Strauss, 1964: 99-100). 물질적 조건의 충족을 위해서 플라톤의 이상국가도 주변국의 재산을 약탈하고, 이에 저항하는 이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스트라우스는 이런 이상국가의 행위를 부정의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대신 스트라우스는 플라톤의 『국가』에서 소크라테스가 이와 같은 침략전쟁을 변호하는 데는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에 대해 논평한다. 즉, 소크라테스는 이상국가의 주변국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영토가 사실은 같은 조상의 땅이었다는 소위 “autochthony” 신화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Strauss, 1964: 102; cf. Plato, Republic, 415d).²⁵ 그러나 스트라우스는 ‘autochthony 신화’와 같은 ‘고상한 거짓말’

25. 따라서 ‘고상한 거짓말’의 원천은 스트라우스나 스트라우시안 혹은 네오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플라톤의 『국가』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에게 있다.

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즉 스트라우스는 ‘고상한 거짓말’을 침략전쟁을 정당화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지적하기 위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플라톤의 『국가』에 나타난 소크라테스의 외교정책은 개별 정치공동체의 이기적인 필요에 의해 규정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몰도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이 공동체의 필요가 무제한적으로 팽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도덕적 절제를 포함한다. 궁극적으로 이 공동체의 물질적 필요란 공동체 구성원이 시민적 덕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인 국내 정치질서의 안정적 유지 이상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스트라우스는 다른 두 장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다룬다. 투키디데스는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고전적 현실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스트라우스는 투키디데스를 우리에게 익숙한 현실주의자로 파악하지 않는다. 스트라우스가 제시하는 투키디데스는 대외정책에 있어서 오히려 앞서 살펴본 플라톤과 유사성을 갖는다. 스트라우스는 투키디데스의 현실주의에 두 측면이 있다고 파악한다. 하나는 강자가 지배와 정복의 자연적 권리, 즉 자연권을 갖는다는 현실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강자가 이와 같은 자연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인 팽창주의는 결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현실주의이다. 예컨대, 투키디데스는 아테네가 무제한적인 팽창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었음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투키디데스는 아테네 제국의 쇠퇴 원인을 아테네가 무제한적인 팽창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내분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스트라우스의 해석에 의하면, 투키디데스는, 타국의 희생을 대가로 자국의 욕구를 채우는 국가는 장기적으로 자국 시민들 간에 같은 방식의 욕구 충족(즉, 타인을 희생시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봤다는 것이다. 아테네 제국의 내분은 무제한적인 팽창주의를 추구한 국가의 정해진 수순이라는 것이다.

세 개의 고전적 저서들에 관한 스트라우스의 해석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외교정책은 기본적으로 자기보존의 목적에만 충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팽창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무제한적인 팽창의 추구는 바람

직하지도 않고(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의 팽창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을 위한 좋은 삶의 추구이므로), 가능하지도 않다(대외적으로 무절제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내부의 균열을 가져와 국가의 쇠퇴를 초래할 것이므로)는 것이다. 자기보존을 강조하는 스트라우스의 외교정책이 일견 단순한 현실주의로 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스트라우스의 외교정책에는 국가 존재의 궁극적 목적이 구성원들의 좋은 삶의 추구라는 점이 분명히 전제되어 있고, 이로 인해 국가는 무제한적인 팽창을 추구하는 외교정책을 자제하게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고전정치철학의 신봉자로서 드러난 스트라우스 외교정책노선의 관점에서 이라크 전쟁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우선, 전쟁의 개시 여부는 단지 대량살상무기의 유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라크가 미국 시민들이나 동맹국의 시민들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인 살상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스트라우스의 외교정책 노선을 따르는 스트라우시안이라면 ‘스트라우스 스캔들’이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대량살상무기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거짓을 유포할 필요가 없다. 미국 시민에게 생존의 위협이 있다면 그것으로 개입의 근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⁶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이라크 침공 이후 시민의 생존이나 미국의 자기보존의 목적보다 이라크의 체제전환 그리고 국가건설을 개입의 근거로 삼았다. 이런 미국 정부의 입장은 적어도 고전정치철학의 신봉자로서의 스트라우스 외교정책 노선과 거리가 멀다. 다시 말해 이라크의 국가건설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실질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것을 위해 자국민의 희생을 수반하는 전쟁이 스트라우스의 입장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이라크의 국가건설과 미국의 국가안보가 실질적인 연관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라크의 민주국가 건설이 가능해야 하고, 둘째, 그것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이바지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이 중 두 번째 쟁점은 소위 민주평화론과 관련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조차 확신을 갖지 못하는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cf. 이해정, 2008). 설령 민

26. 물론 이런 입장이 얼마나 국민을 설득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주평화론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쟁점인 이라크에서 민주국가의 실현이 가능한가의 문제는 더욱 불투명하다. 이 지역은 아직 민주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에 따르자면, 미국은 더 이상 미군을 희생해서는 안 되고, 곧바로 전쟁을 중단했어야 했다(cf. West, 2004). 요컨대, 스트라우스의 외교정책 노선은 부시 행정부가 취한 외교정책 노선과 상당히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 전쟁을 포함해 그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는 일련의 미국외교정책에 오히려 심각한 반대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스트라우스의 외교정책을 추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점은 근대성의 비판자로서의 스트라우스이다. 이와 관련된 가장 적절한 자료는 그 동안 미출간된 상태로 있다가 비교적 최근 출판된 1942년 New School에서 행한 강연(Strauss, 2007)이다. 이 강연의 제목은 ‘정치이론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What can we learn from political Theory?)’이다.²⁷ 이 연설은 제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치이론(철학)이 정치적 실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설은 당시의 정치적 맥락에서 스트라우스가 자신의 정치철학과 외교정책을 포함한 정치적 실천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스트라우스는 우선 정치철학이 정치적 실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검토한다. 그는 이 부정적인 견해의 근거로 첫째, 정치철학은 정치현상의 문제점들에 관한 지식이지, 그 해결책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 둘째, 합리적인 정치행위를 위해서는 정치철학보다는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중요한 정치이념은 정치철학자보다는, 현실정치가, 법률가 혹은 정치적 예언가에 의해 만들어졌으므로 정치철학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스트라우스는 이

27. 이 제목은 스트라우스 자신이 정한 것이 아니라 강연 초청자인 New School 측으로부터 요청받은 것이다. 따라서 그는 강연의 모두에 ‘정치이론’이라는 용어보다 ‘정치철학’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정치이론은 합리적인 정치 행위의 기초와 그 안내를 위한 순수한 이론이라는 인상을 주는 데, 정치적 실천과 이론의 엄격한 구분을 거부하는 스트라우스는 정치적 실천의 요소가 이미 내재해 있는 ‘정치철학’이란 용어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트라우스가 이 강연에서 스스로 설정한 주제는, 정치적 실천에 있어서 정치철학이 어떤 도움을 주는가에 관한 것이다.

런 부정적 견해의 논지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지는 않는다.²⁸ 특히 스트라우스는 정치철학이 해결책보다는 문제제기에 관한 지식이라는 점과, 합리적인 정치행위를 위해서는 정치철학보다는 실천적 지식 혹은 상식이 요구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스트라우스는 정치철학이 정치적 실천의 관점에서 전혀 유용성이 없다는 관점에 관해서는 비판적이다. 즉, 스트라우스는 정치이념은 정치철학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정치적 실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정치철학은 정치적 실천에 있어서 적어도 간접적인 유용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정치철학이 직접적으로 정치이상을 구상하여 정치적 실천을 기획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철학은 신중한 정치가에 의해 제시된 합리적인 정치행위가 그릇된 정치적 가르침, 혹은 그릇된 정치이상에 의해 도전받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방어하고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즉 정치철학은 신중한 정치가에 의해 내려진 정치적 결정을 보조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이다.

정치철학의 간접적 혹은 보조적 유용성은 정치적 실천이 특정한 정치이념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스트라우스는 바로 근대적 유토피아니즘이 신중하고 현명한 정치적 실천을 위협하는 위험한 이념이라고 소개한다. 고대의 ‘정당한’ 유토피아니즘²⁹과 대조적인 근대적 유토피아니즘은 인간의 탁월성을 “계몽된 자기이익”으로 환원시킴으로써 행위의 (도덕적)

28. 부연하자면 같은 강연에서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스트라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명한 대외정책이 정치철학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서도 고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전혀 의심치 않는다. 예컨대,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 이 전쟁 후에 장기적인 평화의 구축을 위해서는 영미와 러시아 간의 우호조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 영미 국가들과 이 세력권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은 군비를 해제하거나 경계를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지배력을 창밖으로 던지면 반드시 이것을 본 첫 번째 폭력배가 이것을 취한다는 것, 전 세계의 시민적 자유는 영미세력의 패권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등 현 상황의 이러한 광범위한 본질요소들을 이해하는 데는 어떤 정치철학적 교훈도 필요치 않다”(Strauss, 2007: 518)(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임).

29. 스트라우스에 따르면, 고전정치철학은 자연권(여기서 자연권이란 근대 자연권 이론에 기초한 자연권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연의 질서에 따른 권리를 의미한다)의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현실의 정치질서를 판단한다. 현실의 정치질서에 비해 자연적인 정치질서는 완전하지만, 그 실현은 오로지 운에 달려 있다. 그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고전정치철학을 ‘정당한’ 유토피아니즘이라고 부른다.

기준을 낮추고, 그 대신 낮춰진 기준의 확실한 실현을 보장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근대적 계몽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이익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면, 그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사회적 조화가 달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트라우스는 이 같은 근대적 유토피아니즘의 성공가능성을 부정한다. 스트라우스는 계몽된 자기이익만으로 인간본성에 내재해 있는 권력욕이나 지배욕이 극복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스트라우스의 근대성 비판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외교정책 노선은 무엇인가? 우선, 스트라우스가 이 강연을 할 당시의 정치적 맥락에서 근대적 유토피아니즘의 위협으로부터 정치철학이 변호해야 할 합리적이고 신중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스트라우스는 세계 2차 대전이 전개되고 있는 당시의 상황에서 선택은 제국주의냐 제국주의의 폐기냐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온건한 영미식의 제국주의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주축국가(Axis State)의 제국주의 간의 선택이라고 주장한다(Strauss, 2007: 520). 이런 주장은 인간이 완전히 선행될 수 없다면 인간관계도 완벽하게 선행될 수 없다는 인간본성에 대한 스트라우스의 이해를 전제로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어렵게 하는 근대적 유토피아니즘이란 영구평화를 희망하는 어리석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철학은 인간의 희망에 한계가 있음을 경고하고, 그릇된 희망에 기초한 정치이념으로부터 합리적인 정책을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근대적 유토피아니즘에 의해 가려진 진실, 즉 세상의 악은 계몽을 통해서도 완전히 제거될 수 없고, 그래서 때로는 전쟁을 통해 악의 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이러한 스트라우스의 실천적 노선은 도덕적 선명성을 추구하는 미국외교정책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트라우스의 도덕적 선명성은 영구평화에 대한 무분별한 희망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즉, 스트라우스 외교정책은 이상주의 자체가 아니라 이상주의의 신중한 추구에 있기 때문이다.³⁰ 신중한

30. 스트라우스는 이와 함께 정치철학의 또 하나의 역할을 ‘세속적인 우쭐덤’에 대한 경계로 파악한다. 이는 현재의 사회를 완벽한 것으로 보거나, 적어도 미국 사회가 앞으로 완벽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는 현실주의적 오만에 대한 경계이다. 그러나 이 연설에서 스트라우스의 강조점은 세속적인 우쭐덤이라는 현실주의적 오만에 대한

이상주의의 추구라는 스트라우스의 입장은 당시의 시대적 맥락을 언급한 *City and Man*의 서론에서도 확인된다. 스트라우스는 여기서 1960년대 지구 상에서 공산주의의 완전한 소멸을 지향하는 서구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유혈, 무혈의 사회적 변화도 인간에 내재해 있는 악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악의, 부러움, 혐오가 사라지지 않는 한, 강제적 구속이 필요 없는 사회는 도래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스트라우스는 보편국가(universal state)의 이상은 그것이 단일한 국가이든 연합체이든 환상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는 당시의 맥락에서 반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편국가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보편국가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근대에 잘 못 설정된 이상으로부터 유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스트라우스의 입장에 따르면, 전 세계를 민주국가들의 연합체로 구성하려고 하는 외교정책은, 그것이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든 혹은 민주평화론의 이름으로 시행되든³¹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인간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영원한 진보에 대한 희망은 포기해야 한다는 스트라우스의 외교정책 노선은 오늘날 미국 외교정책의 평가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한 잣대가 될 수 있다.

V. 결론

이 논문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라크 전쟁에 대한 스트라우스 책임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첫 번째 목적은, 스트라우스가 이라크 전쟁의 근본원인이라는 대중적인 견해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중적 이미지와 구분되고, 드러리의 영향력에서도 벗어난 스트라우스의 실질적인 외교정책 노선을 재구성하는

경계보다는 근대적 유토피아즘이라는 지나친 이상주의에 대한 경계에 맞춰져 있다 (Strauss, 2007: 525-526).

31. 국제정치에서 논의되는 민주평화론에 대한 정치철학적 비판에 관해서는 이혜정(2008)을 참고.

것이다. 첫 번째 목적과 관련해서 본 논문은 스트라우스 정치철학과 이라크 전쟁과의 관련성에 관한 근거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본 논문은 기존의 비판자들처럼 스트라우스와 스트라우시안 그리고 네오콘의 인적 커넥션의 진위를 추적하기보다, 스트라우스의 대중적 이미지가 그의 정치철학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고, 또 어떤 왜곡과 과장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스트라우스의 대중적 이미지는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의 단편적인 요소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이미지를 대표하는 두 요소인 플라토닉 이상주의와 마키아벨리안 현실주의는 기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부정합의 관계에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스트라우스의 대중적 이미지가 상당한 결함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일차적으로 미디어의 영향력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드리리를 중심으로 한 反스트라우스/反스트라우시안 연구자들의 학문적 지원을 중요요인 중 하나로 파악했다. 드리리는 특히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이 모든 기만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정치세계 전체를 지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적절한 비판을 가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에 대한 오해로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³²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에 대한 오해는 정치철학과 외교정책의 관계 자체에 대한 오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드리리의 해석이 얼마나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가를 검토하였고 아울러 그녀의 해석이 정치철학과 외교정책의 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스트라우스의 외교정책을 직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그의 외교정책을 가상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스트라우스의 외교정책 노선에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공존한다. 스트라우스의 대중

32. 미국 정치사상 학계는 사실 스트라우스에 대한 세간의 비난에 대해 대체로 둔감한 편이다(예외적으로 Zuckert and Zuckert(2008)가 있다). 아마도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에 대한 심도 있는 학문적 평가가 이미 정착되어 있기 때문인 듯하다. 반면, 한국 학계의 사정은 이와 좀 다르다.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의 중심 주제에 대한 논의는 매우 제한적인 상태에서, 스트라우스는 네오콘의 대부라는 이미지로 먼저 알려졌다(e.g., 박성래(2006)).

적 이미지나 드러리 역시 스트라우스에게서 발견되는 이상주의적 요소와 현실주의적 요소를 주목한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스트라우스의 대중적인 이미지는 그의 이상주의가 그의 현실주의를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해석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을 위해서라면 어떤 사악한 수단이라도 모두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드러리의 해석에 따르면, 스트라우스는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현실주의자였고, 이상주의자로서의 모습은 대중을 설득하기 위한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추론한 스트라우스의 외교정책에 따르면, 스트라우스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는 하나가 다른 하나의 수단이 되는 관계도 아니고, 드러리의 해석처럼 표리가 부동한 관계도 아니다. 대신 본 논문은 스트라우스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모두 절제의 방향으로 수렴한다고 파악하였다. 스트라우스의 외교정책은 좀 더 세부적으로 고전정치철학자의 관점과 근대성 비판자의 관점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전자가 권력을 통한 자기생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정치공동체의 목적을 구성원의 ‘좋은 삶’에 두고 있는 ‘절제된 현실주의’를 대변한다면, 후자는 근대적 계몽주의에 의존한 획일적 일방주의를 경계하는 ‘절제된 이상주의’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절제로 수렴하는 스트라우스 외교정책의 관점에서 고대 아테네는 ‘현실주의적 절제’에 실패한 경우이다. 반면, 냉전기의 공산주의 세력이나 이에 저항했던 자유주의 세력 역시 무모하게도 자유주의적 보편국가 혹은 연합체를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이상주의적 절제’에 실패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스트라우스는, 부시행정부 하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가능하다고 믿는 입장에 대해서도 ‘이상주의적 절제’에 실패한 사례라고 평가할 것이다. 지금은 어떤 종류의 절제를 적용해야 하는 시점일까? 스트라우스라면, 현 시점에 대한 진단은 실천적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정치가 혹은 정책결정자의 몫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대신 그는, 이상주의나 현실주의의 무절제한 실천적 시도가 어떤 비극을 초래할지를 경고하는 것으로 정치철학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성래. 2006. 『레오 스트라우스: 부활하는 네오콘의 대부』. 서울: 김영사.
- 박성우. 2006.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갈등과 조화: 미국헌법해석에서 원본주의 논쟁의 의미와 역할」. 『한국정치학회보』 40권 3호. pp. 55-77.
- 박성우. 2011. 「국익추구의 도덕적 한계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좋은 삶의 정치」. 『21세기 정치학회보』 21권 2호. pp. 1-22.
- 안병진. 2004. 「신보수주의의 이념적 뿌리와 정치적 함의: 레오 스트라우스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8권 1호. pp. 127-142.
- 이혜정. 2008. 「민주평화론의 패러독스: 칸트 평화사상의 왜곡과 오용」. 『한국외교사논총』 29권 2호. pp. 129-153.
- 장원석. 2005. 「레오 스트라우스와 스트라우시안의 미국 건국사상 해석 일고」. 『한국정치학회보』 39권 1호. pp. 109-124.
- Atlas, J. 2003. "Leo-Con: A Classicist's Legacy: New Empire Builders." *New York Times*, May 4.
- Berkowitz, P. 2003. "What Hath Strauss Wrought: Misreading a Political Philosopher." *The Weekly Standard*, 8(37): 14-15.
- Blitz, M. 2003. Leo Strauss, the Straussians and American Foreign Policy. http://www.opendemocracy.net/democracy-americanpower/article_1577.jsp (accessed on 15 March 2012).
- Burnyeat, M. 1985. "The Sphinx without A Secret." *New York Review of Books*, 32(9): 30-36.
- Clay, J. S. 2003. "The Real Strauss." *New York Times*, June 14.
- Dahl, R. 1956. *A Preface to Democratic The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evigne, R. 1994. *Recasting Conservatism: Oakeshott, Strauss, and the Response to Postmodernism*.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Drury, S. 1988. *The Political Ideas of Leo Strauss*. New York: St. Martin's Press.
- Drury, S. 1997. *Leo Strauss and the American Right*. New York: St. Martin's Press.
- Drury, S. 2004. Saving America: Shadia Drury Unpacks Neoconservatism. <http://evatt.org.au/papers/saving-america.html> (accessed on 15 March 2012).
- Drury, S. 2005. *Leo Strauss and the American Right*. New York: MacMillan.
- Frachon, A. and Vernet, D. 2003. "The Strategist and the Philosopher." Translated by M. K. Jensen. *Le Monde*. April 19.
- Gourevitch, V. and Roth, M. S. 2000. *On Tyranny: Including the Strauss-Kojève Correspond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ottfried, P. 2002. "Straussians vs. Paleo-conservatives." *Lew Rockwell*, May 17.

- <http://www.lewrockwell.com/gottfried/gottfried29.html> (accessed on 15 March 2012).
- Hamilton, A., Madison, J., and Jay, J. 1987. *Federalist Papers*. NY: Classics.
- Heer, J. 2003. The Philosopher. <http://www.jeetheer.com/politics/strauss.htm> (accessed on 15 March 2012).
- Hersh, S. 2003. "Selective Intelligence." *New Yorker*, May 12.
- Lacoyo, R. 1996. "You've Read about Who's Influential, but Who Has the Power?" *Time*, June 17.
- Larmore, C. 1989. "The Secrets of Philosophy." *New Republic*, April 3.
- LaRouche, L. 2003. "The Essential Fraud of Leo Strauss." *Executive Intelligence Review*, March 5.
- Lenzner, S. J. and Kristol, W. 2003. "What Was Leo Strauss Up To?" *Public Interest*, 153(Fall): 19-39.
- Lilla, M. 2004a. "Leo Strauss: The European." *New York Review of Books*, 51(16): 58-60.
- Lilla, M. 2004b. "The Closing of the Straussian Mind." *New York Review of Books*, 51(17): 55-59.
- Lobe, J. 2003. "Neo-Cons Dance A Straussian Waltz." *Asia Times*, May 9.
- Meier, H. 2006. *Leo Strauss and Theologico-Political Proble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nowitz, P. 2009. *Straussophobia: Defending Leo Strauss and Straussians against Shadia Drury and Other Accusers*. Lanham: Rowman & Littlefield.
- Pangle, T. 1989. *The Rebirth of Classical Political Rationalis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ngle, T. L. 2004. "Leo Strauss's Perspectives on Modern Politics." *Perspectives on Political Science*, 25(4): 197-203.
- Pangle, T. L. 2006. *Leo Strauss: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and Intellectual Legacy*.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Papert, T. 2003. "The Secret Kingdom of Leo Strauss." *Executive Intelligence Review*, 30(15): 56-59.
- Pfaff, W. 2003. "The Long Reach of Leo Straus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y 15.
- Postel, D. 2003. Noble Lies and Perpetual War: Leo Strauss, the Neo-Cons, and Iraq. http://www.opendemocracy.net/faith-iraqwarphilosophy/article_1542.jsp (accessed on 15 March 2012).
- Schumpeter, J. 194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Y: Harper.
- Smith, S. 2007. *Reading Leo Strauss: Politics, Philosophy, Judais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mith, S. 2009. *Cambridge Companion to Leo Strau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aples, B. 1994. "Undemocratic Vistas: The Sinister Vogue of Leo Strauss." *New York Times*, November 28.
- Steinberg, J. 2003. "Leo Strauss, Fascist Godfather of the Neo-Cons." *Executive Intelligence Review*, March 21, 34.
- Strauss, L. 1953. *Natural Right and Hist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rauss, L. 1958. *Thoughts on Machiavell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rauss, L. 1959. *What is Political Philosophy and Other Studies*. Glencoe, IL: The Free Press.
- Strauss, L. 1964. *The City and M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rauss, L. 2007. "What Can We Learn from Political Theory?" *Review of Politics*, 69(4): 515-529.
- Tanguay, D. 2007. *Leo Strauss: An Intellectual Biography*. Translated by C. Nad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Tarcov, N. 2006. "Will the Real Leo Strauss Please Stand Up?" *The American Interest*, 2(1): 120-128.
- Tarcov, N. 2011. "Philosophy as the Right Way of Life in Natural Right and History." In P. Armada and A. Gornisiewicz (Eds.), *Modernity and What Has Been Lost: Considerations on the Legacy of Leo Strauss*. South Bend, IN: St. Augustine's Press.
- The Economist*. 2003. "Philosophers and Kings." June 19.
- West, T. G. 2004. "Leo Strauss and American Foreign Policy." *Claremont Review of Books*, 4(Summer): 13-16.
- Wood, G. S. 1988. "The Fundamentalists and the Constitution." *New York Review of Books*, 35(2): 33-40.
- Zuckert, C. H. and Zuckert, M. 2008. *The Truth about Leo Strauss: Political Philosophy and American Democra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 Political Philosophy-based Critique of Leo Strauss's Responsibility for the Iraq War

Sungwoo Park

Associate Professor,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Chung-Ang University

The paper aims at critical examination of the one-time popular accusation that Leo Strauss (1899-1973), a political philosopher aloof from real politics in his life time was a mastermind of the Iraq War. First of all, it examines how much the public image of Strauss agrees with or differs from the essential elements of his political philosophy. It looks into how the alleged accusation is initiated and exaggerated by the media. Secondly, it derives the principles of Strauss' foreign policy from his political philosophy. Concerning the first issue, the paper argues that while Strauss' public image does include some elements of his political philosophy, the alleged connection between Strauss and the War is not well-grounded. The paper notes that Shadia Drury, one of the Strauss scholars, is responsible for sustaining the public image of Strauss. In particular, Drury's apparently scholarly interpretation of Strauss played a decisive role in legitimizing insufficient and inconsistent evidences about Strauss. Finally, in searching for a genuine version of Strauss' foreign policy, the paper concludes that he endorses "moderated realism" as an advocate of classical political philosophy and, at the same time, "moderated idealism" as a critique of modernity. Neither of them would have supported the Iraq War or the unlimited expansionism under the Bush administration.

Key Words: Leo Strauss, Iraq War, Foreign Policy, Realism, Idealism,
Moderation, Shadia Drury